

지역 소식통

김제시 2020년 산업·농공단지 간담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9일 봉황농공단지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운영 애로 해소를 위하여 9개 산업·농공단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제도약 행보를 본격화했다.

특히 올해로 3번째를 맞는 간담회에서는 단차별 기업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김제시 지원 시책설명 및 산업현장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수출 및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긴급자금이 필요함에도 지원 조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농공단지 내도로 확포장, 재활용 선별장 인근 환경정비 등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김정호 봉황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처럼 기업도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봉황농공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산업·농공단지별 기업인들을 찾아 간담회를 가지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가정위탁 부모교육 담당 공무원 간담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9일 고용복지포럼교육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2층 중회의실에서는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탁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하고, 건강한 위탁가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 부모 22명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아동안전보호정책 및 가정위탁보호제도 소개와 위탁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가정위탁 서비스의 이해, 긍정적 양육 기술 향상 및 양육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관광브랜드 공식 확정

'바람따라 완주따라, 완주' ... 완주의 관광브랜드로 선정 2021~2022년 완주방문의 해 대비 전방위 홍보 본격 돌입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완주관광과 완주방문의 해에 사용할 관광브랜드로 '바람따라 완주따라, 완주'를 개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적으로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2월에 '완주 관광 및 완주방문의 해 브랜드 개발 용역'을 발주했다.

완주군은 같은 달 말부터 두 차례의 중간보고와 실무자 미팅, 전문가 자문 등 엄정한 과정을 거쳐 디자인 기본형과 슬로건을 개발하였으며, 지난 5월 말에 각계 전문가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 개발 용역 최종보고

회를 개최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2021~2022년 완주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완주의 정체성과 관광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에 무게를 뒀고 최종적으로 '바람따라 완주따라, 완주'를 관광브랜드로 확정했다.

또 브랜드 슬로건인 '바람따라 완주따라'는 발길이 따르는 완주의 길을 잘 표현했다는 평이다. 완주 명소를 따라가다 보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펼쳐짐을 의미하며, 가는 곳마다 여유가 생기고 기억에 남는 완주의 관광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분석이다.

완주군은 완주만의 특성과 매력적인 가운데 브랜드 개발 용역 최종보고



에 따라 도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주군은 특히 2021~2022년 완주방문의 해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브랜드 시스템을 구축해 완주관광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허전 김제부시장, 국가예산 확보 활동 전개

국회 방문·현안사업 국비 확보 건의

허전 김제부시장이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하여 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정부의 제3차 추경예산과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허전 부시장은 지난 4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번 국회 방문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구 이원택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도내 국회의원들과 소관 상임위 배정인 예상되는 의원들을 예방

하여 향후 국회의 심의과정에 서 현안사업들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적극 피력하였다.

허전 부시장은 "김제시 경제도약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단계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2021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기재부 심의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3차 추경예산의 국회심의 대응과 함께 중점사업들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심의가 끝나는 8월까지 지역국회의원과 전북도 등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은퇴자 공동사무실... '다시온(ON)봄' 입주자 모집

완주군이 은퇴자·신중년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은퇴자 공동사무실 '다시온(ON)봄'을 조성하고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은퇴자 공동사무실 '다시온(ON)봄'은 4000 은퇴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평일 출퇴근이 가능한 공유 사무공간으로 인생 재설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삼례읍 삼례시장 청년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퇴자 공동사무실 입주 자격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만40~69세의 은퇴자면 지원 가능하다.

모집 규모는 15명 이내로 참여를 신청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달 7월부터 올해 말까지 6개월여 기간 동안 '다시온(ON)봄'에 입주해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완주군은 한국매니페스트도심전본부(사무총장 이광재)와 함께 '은퇴자 공동사무실 운영' 협약을 시작으로,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제정 등 중장년 은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준비해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총 3회에 걸쳐 은퇴자 인생재설계 북콘서트 '다시 봄'을

개최하며 은퇴자와 신중년분들의 관심과 의견을 수렴해 바탕을 다져왔다.

완주군은 '다시온(ON)봄'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소 준비에 들어갈 계획으로, 이후 인생 재설계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입주자들의 은퇴 전 전문경력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형(재능기부)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은퇴자 및 신중년 정책을 적극 추진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서류접수는 오는 21일 까지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홈페이지(http://www.wan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여성숙)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행복 상담소' 사업을 이달부터 주 3회 재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마음 행복 상담소'

주 3회 상담 진행... 김제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기대감 'UP'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여성숙)에서는 김제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유도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찾아가는 마음 행복 상담소' 사업을 재개한다.

이달부터 주 3회,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및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다.

2019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행안부 주관)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용률을 향상할 것이라 기대되는 '찾아가는 마음 행복 상담소'는 우울, 불안, 알코올, 스트레스 등 유형별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을 위한

1:1 개별상담으로 운영된다. 김제시 정신건강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인지율(17년대비 5.2%p 증가)과 우울감 경험률(17년대비 5.1%p 증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시민들의 정신건강상담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마음 행복 상담소'는 이동 상담의 농촌형 표준 모델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은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이동 상담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와 관심 유도에 도움이 되도록 시민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1천만원 지급한다

김제시가 비혼·만혼이 만연한 사회 현상 극복과 초기 신혼생활안정을 위해 결혼축하금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김제시는 지난해 8월,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유입 촉진 등 김제형 인구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임시회에서는 저출산 해결의 시작점인 결혼 장려와 초기 신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결혼축하금을 1천만원 상향과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 개정이 통과되어 6월 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결혼축하금 지급대상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19세 이상 만49세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년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중 1명이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면 신청후 바로 50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4년간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씩 4회 분할 지급한다. 단, 부부가 하우라

도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 지원금 지급이 중단 환수된다.

이와 더불어 주거미련도 한결 쉬워진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율 연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김산동 행복주택 임대보증금도 지원 계획에 있다.

출산장려금 또한 첫째가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생애 첫 통장 개설(10만원) 및 셋째가 이상 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상하수도 요금 할인, 종량제봉투 지급 및 할인가맹점 운영 등 지역사회 돌봄도 다양화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김제에서 취직하고 경제적 고민없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아이를 낳으면 시가 키워준다는 결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Gimje City Council featuring a silhouette of a man pushing a stroller and a child riding a bicycle. Text includes: '한옥마을 품바왕명인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민에게 힘을 주는 김제시의회!', and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